

사랑이 넘치는 함께 사는 세상

의왕시 에덴랜드과자점 대표 지영식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일꾼이 있다.
그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회의 그늘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제과인이다.
현재 경기도 의왕시에서 에덴랜드과자점을 경영하고 있는 지영식씨를 만나 보았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생업 못지 않게 불우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지영식씨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본인의 이야기가 글로 소개 된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정작 그 자신은 여태까지 대단하게 한 일이 없다고 겸손히 말하는 그의 말처럼 내세울 정도로 큰 일을 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치않는 이웃 사랑은 흔치 않을 것이다.

인생에서 가치있는 것을 느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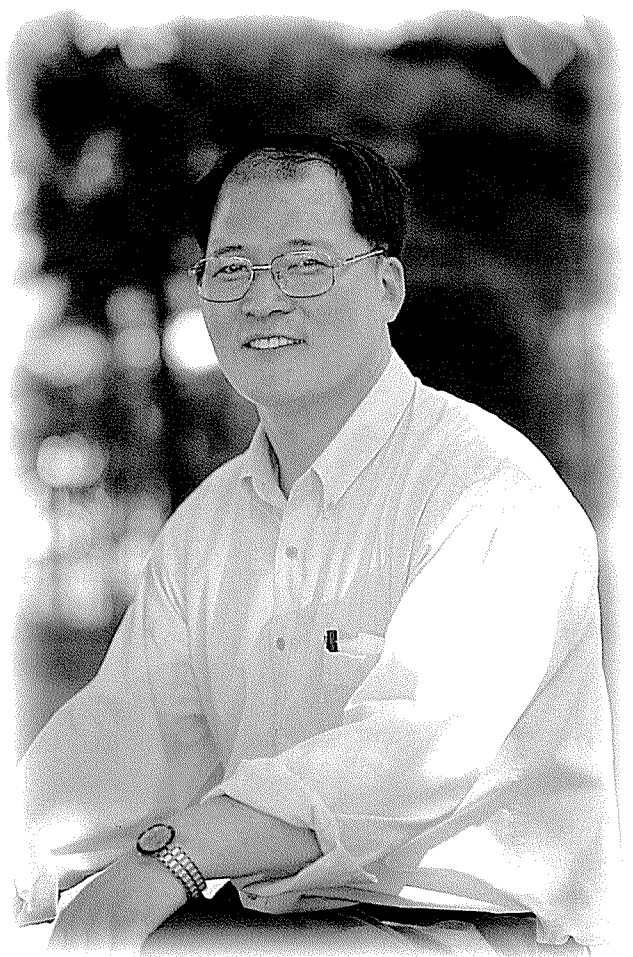
지영식(42)씨는 19세 때 외삼촌 김보경씨가 경영하던 가나안제과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일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되어 제과업과 인연을 맺게 된다. 생산의 전 라인에서 제과에 대한 기본기를 익힌 후 개발실에서 실무 경력을 쌓았던 그는 명동 입구에 있던 몽블랑제과로 옮겼다가 그 곳에서 김국정씨(미국 거주)를 만난다. 그리고 얼마 후 김국정씨가 백자당을 창립하게 되면서 지영식씨는 창단 멤버로 스카우트되어 활동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국정씨는 제 가진 것을 다 드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인간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는 군대 생활 틈틈히 동료들에게 밀가루, 설탕, 이스트만을 가지고 간식을 만들어 주위로부터 찬사를 듣곤 했다. 제대 후 휴식을 가져볼 겨를도 없이 다시 가나안제과로 복귀한 그는 제과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 때 가나안제과는 많은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로 크게 성장해 있어 대우도 좋고 보수도 많았지만 자신이 직접 제과점을 경영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독립했다.

지영식씨는 90년 현재의 위치에 에덴랜드과자점을 오픈했다. 창업 자금이 부족했던 그는 살고 있던 전세 보증금을 빼



고 아이들도 시골에 맡겼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시간을 쪼개 찾아 갔을 때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아빠, 엄마를 보고도 서먹서먹하게 대하는 아이들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과점 규모는 작지만 지영식씨의 성실한 운영으로 지역에서 내실있는 점포로 성장했다. 제과일이 적성이 맞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게 취미라는 그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다. 처음 보는 제품은 꼭 메모를 하



▲ 에덴랜드 식구들 뒤로 지영식씨가 얼마나 많은 단체에서 활동하는가를 알 수 있는 위촉장이 있다.

고 분석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다. 가나안제과 개발실 시절부터 몸에 배인 연구하는 자세가 오늘날 에덴랜드과자점을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그가 의왕시 내선동에 살기 시작한 것은 15년전. 동네에 집이 2채 있을 때부터 뿌리를 내려 이제는 토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 제과점을 운영하고 남은 수익의 일부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 했다.

동네 사람들과도 아주 가깝게 지내다 보니 하나 둘 지역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의왕시 협의회 사무국장, 사랑 나눔회 부회장, 동정 자문위원, 파출소 방범 자문 위원회 총무 등 현재 10개 이상의 단체에서 임원을 맡아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그는 굉장히 바쁜 삶을 살다 보니 한달이면 네가족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정치인 후보로 지영식씨를 추천 하지만 그는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참다운 지역 봉사를 못하게 된다면 사양하고 있다.

그는 의왕시에 푸드뱅크(food bank)가 설립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의왕시에서 남는 빵을 자체적으로 수거, 관내의 불우 이웃에게 공급토록하여 의미 있게 쓰여지고 있다.

관내에 있는 24명의 결식 학생들에게도 매달 생활비를 지원 하고 있다. 이제



▲ 부인 이성실씨는 지영식씨의 든든한 후원자이다.

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소문이 나서 빵을 살 일이 있으면 꼭 지영식씨 제과점에 오는 손님도 있다. 요즘에는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 것보다 직접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한가지의 선행은 또 다른 선행을 낳는다.’

지영식씨는 바쁜 가운데에서도 오전에는 꼭 제과점에서 직접 일을 한다. 그리고 사회 봉사나 다른 일은 오후에 하게 되는데 어찌다 자율 방범 활동까지 하게 되면 새벽이 되어서야 귀가를 하게 된다.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같아 미안한 심정입니다. 집안을 화목하게 이끄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편안하기 때문에 밖의 일을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거노인과 고아원, 무의탁 양로원 등 불우한 이웃을 방문할 때면 자녀들과 함께 가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독거노인 중에 100세 생일을 맞으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봉사 단체의 회원들이 힘을 모아 생일상을 차려드리기도 했다.

그는 하루에 잠도 5시간 이상은 안자며 밤 12시가 되어서야 귀가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행복하고 소외된 사람을 찾는 것에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지영식씨는 자신이 지역에서 사회 봉사를 안했다면 현재와 같이 돈을 벌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며 돈은 어떻게 가지 있게 쓰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 바쁜 중에도 건국대학교 농축산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마쳤다.

“24년간 제과일을 했지만 아직도 어렵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손님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아직도 배운다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내 자녀들이 제과업을 대를 이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의 선행은 또 다른 선행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게 참다운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는 지영식씨의 봉사 활동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사랑이 넘치는 함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글/정한상〉